

영광군, 코로나19 감염 대응 외국인 방역대책 회의

방역수칙 안내·진단검사·예방접종 참여 독려 “지역사회 소중한 구성원...방역 적극 동참 당부”

영광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연휴기간 이후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김장오 부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분야별로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외국인의 진단검사 회피 및 백신 예방접종을 저조와 관련하여 진단검사율과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여부 조사와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외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등을 활용해 외국인의 진단검사 및 예

방접종 동참을 독려하고, 유관 단체와 협조하여 미등록 외국인이 진단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신상 정보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출국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9월 말까지 관내 등록·거소 신고 외국인 1,565명 중 1차 접종자는 1,273명(81.3%), 접종완료자는 575명(36.7%)이며,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 27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이번 회의서 김장오 부군수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들은 불이익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진단검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들도 엄연히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므로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우리 군 방역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내버스공론화위, 최적 대안 찾기에 최선 시민 의견 수렴 공정한 의사결정 강조

목포 시내버스 운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위원장 정기영 세한대 교수)가 목포시에 맞는 최적의 대안 마련과 공정한 의사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론화위는 1일 목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개최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버스 운영체계 공론화 논의의 과정 등을 설명했다. 목포시에서는 김형석 안전도시건설국장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졌다.

공론화위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이용객 급감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해 현재 버스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공론화위는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올해 4차 추경에 편성한 20억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대안이 나오기까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이다”고 설명하면서 “예산 전액을 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도록 목포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대상자 신청

생애 1회 한해 20만원 지원...1년 이상 주소 둔 만 35세 이상

영암군은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 여성의 조기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생애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하는 경력이음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영암군에 신청일 기준

으로 1년 이상 주소 둔 만 35세부터 54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업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가능

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여성 능력개발과 취업 장려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군의 이러한 정책이 조금이나마 관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복귀 기회를 찾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섬 맨드라미 랜선축제

라이브커머스·빨강 드레스코드 인증 등 홈페이지 통해 중계

신안군이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작은 섬 병풍도에서 열리는 “섬 맨드라미 랜선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섬 맨드라미축제는 증도면에 속한 작은 섬 병풍도에서 주민들이 3년간 황무지 야산을 개간하여 기적의 만든 축제로 11ha에 달하는 대규모 맨드라미 꽃동산에서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어 올해는 랜선축제로 축소 개최되는 만큼 섬을 들어가는 문턱부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축제 홈페이지(맨드라미축제.kr)로 축제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고, 주무대는 맨드라미공원 야외공연장에 온라인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된다.

축제 프로그램으로는 신안특산물인 김과 왕새우로 꾸민 라이브커머스, 맨드라미 가요제, 빨강 드레스코드 인증하기, AI 랜선키친, 신안군 유튜브 신철우의 신안 기행 및 축제음식을 즐기는 푸드과이터의 맛난 신안여행, 맨드라미 공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맨드라미 특Talk카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으며, 특히 축제기간 중에 라이브커머스를 2회 운영해 김, 왕새우 등 신안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요리연구가가 진행하는 다양한 요리법 안내 및 판매를 진행한다.

신안=이덕주 기자

함평군, 왜 ‘상해임시정부청사’가 함평사랑상품권에?

5년만에 상품권 도안 변경 지역 특색 새롭게 반영해

함평군이 지역 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을 5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함평군은 3일 “함평사랑상품권 1만원권 도안에는 함평 신광면에 복원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와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5만원권에는 올 초 공식 개장한 함평자동차극장 전경을 넣고, 추가로 관광지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새로운 상품권 도안으로 함평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과,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함평자동차극장을 배경으로 넣어



함평의 특색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1만원권의 경우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가 언제 할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등기 명의인이었던 김철 선생 생가터인 신광면에 복원된 청사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안을 변경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도안뿐만 아니라 상품권 색상 또한 변경했다. 기존 상품권의 경우 1만원·5만원권 지폐 색상과 반대로 제작돼 있어, 이번 도안 변경 시 상품권 1만원권은 녹색으로 5만원권은 황색으



로 변경해 지폐와 동일한 색으로 통일했다. 특히, 신·구 상품권이 아직 시중에 섞여 있어 서로 다른 권종별 색상이 동일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는 상품권 사용 시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역상품권을 정상거래하지 않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는 등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무안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사업 완료

무안군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본격적인 벼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추어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의 이송·저장 라인과 제품생산 기반 시설 등의 개보수를 완료했다.

미곡종합처리장 개보수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군비 70%, 자부담 30%)을 투입해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해 무안 쌀이 전국 대표 브랜드 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